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창성 착각은 읽은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었다고 오해하는 현상으로, 글을 대강 훑어 읽거나 까다로운 원전을 명료하게 정리한 글을 읽는 등 별다른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독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독자는 읽은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글로 요약하는 등의 인지적 출력을 시도하는 순간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착각을 방지하려면 글의 종류나 특징과 무관하게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어서 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독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글을 읽기 전 관련 배경지식을 떠올리거나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 보는 인지 활성화 전략이다. 예측한 것이 실제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 구조가 활성화되고 글의 내용을 더 잘 내면화할 수 있다. 둘째는 글을 읽은 후 머릿속 지식을 확인하는 인출 전략이다. 빈 종이에 읽은 내용을 기억해서 써 보는 자유 회상이나 핵심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반추를 통해 읽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다른 글과 비교하며 읽는 교차 읽기 전략이다. 동일한 주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룬 글을 비교하거나 다른 주제의 글을 섞어 읽으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며 핵심 내용을 잘 포착할 수 있다.

진정한 독서는 눈으로 글자를 훑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글을 깊이 파고드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인지적 부담을 견뎌 내는 불편한 독서를 할 때 독자는 수준 높은 독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진정한 독서는 인내심을 수반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② 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종류의 글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한다.
③ 독자가 읽은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요약하는 것은 인지적 출력에 해당한다.
④ 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은 독해 능력을 기르는 전략 중 하나이다.
⑤ 다른 주제의 글을 섞어 읽는 것은 핵심 내용을 잘 포착할 수 있는 방편에 해당한다.

2. 유창성 착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글의 의미를 구성하고 글을 깊이 읽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글을 대강 훑어 읽다가 인지적 부담에 직면했을 때 발생한다.
③ 읽은 내용을 말하거나 쓰는 과정을 반복할 때 한층 심화된다.
④ 실제 이해한 정도와 스스로 이해했다고 믿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상태이다.
⑤ 명료하게 정리된 글을 읽을 때보다 까다로운 원전을 읽을 때 빈번하게 일어난다.

3. 다음은 학생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 ~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인공 감미료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 예전에 인공 감미료의 위험성을 다룬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이 글도 비슷한 내용일 것이라 예측했는데, 인공 감미료의 안전성을 다룬 글이라 더 인상 깊게 읽어 이해가 잘 되었다. ㉡ 인공 감미료의 유해성을 경고한 글도 찾아 읽었는데,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두 글을 비교해 읽다 보니 각 글의 논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 추가로 찾아 읽은 글에 대해 이해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빈 종이에 읽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써 보았다.

① ㉠: 기사의 내용을 떠올리며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은 인지 활성화 전략에 해당하겠군.
② ㉠: 예측한 내용이 실제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글의 내용을 더 잘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③ ㉡: 동일한 제재를 다른 관점에서 다룬 글과 비교하며 읽은 것은 교차 읽기 전략에 해당하겠군.
④ ㉡: 처음에 느낀 혼란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읽은 의미에 대해 반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겠군.
⑤ ㉢: 빈 종이에 글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써 본 것은 인출 전략에 해당하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뢰즈와 가타리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를 생명 그 자체의 상태로 보았으며, '탈영토화'는 이러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개념이다. 이때의 영토는 일정한 질서 안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영역을 의미하며, 탈영토화란 영토로부터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움직임을 말한다. 영토에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움직임으로서의 탈영토화는 그들이 긍정하는 생명의 상태에 부합하는 것이다.

'유목민'은 탈영토화를 상징하는 형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거처를 마련하는 유목민에게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탈영토화의 과정 자체를 자신의 삶으로 삼는 존재의 형상을 발견하였다. 이때 유목민의 영토는 정착을 위한 목적지가 아니라 유목에 필요한 거점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탈영토화에 종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유목적인 삶이란 개인의 자유 의지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정신 분석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질서의 영향력이 강한 상태를 공간에 홈이 파인 것에 빗대어 표현했는데, 이때의 공간은 무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의 홈은 질서의 비유적 표현으로서, 의식되지 않더라도 인간을 그것에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행동의 경로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홈이 파인 공간으로서의 무의식은 홈이 파이지 않은 매끈한 공간으로서의 무의식에 비해 유목적인 삶이 실현되기 ⓐ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무의식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도, 무의식 형성에 어린 시절의 가족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본 정신 분석학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인간이 세계를 대면하면서 무의식이 지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점에서 그들이 말한 무의식은 '생산적 무의식'으로 불린다. 그들이 집단이나 예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도 생산적 무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집단이 무의식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예술은 감각적으로 체험되면서 무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들은 고정되지 않는 움직임으로서의 탈영토화를 실천하기 위해 집단과 예술의 영향 속에서 무의식을 홈이 파이지 않은 매끈한 상태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

재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재즈의 중핵적인 요소가 즉흥 연주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프리카 음악의 전통에서 유래한 재즈의 즉흥 연주는, 자유에 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갈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재즈를 대표하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재즈의 즉흥 연주는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의 즉흥 연주인 '솔로'이다. 솔로는 밴드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전면에 나서서 즉흥 연주를 하는 것으로, 하나의 곡이 연주되는 동안 밴드의 구성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솔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솔로를 시작하기 전에는 중심 선율과 화성, 리듬이 종합된 주제인 '헤드'를 모든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여 곡의 시작을 알리며, 솔로 연주자는 헤드의 선율, 화성, 리듬을 비틀고 전복하면서 밴드를 이끌어 간다. 즉 솔로는 헤드의 질서를 벗어나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두 번째는 집단적 차원의 즉흥 연주이다. 솔로 연주자가 성공적인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나머지 연주자들도 즉흥 연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연주자 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실현되는데, 다른 연주자의 연주를 모방하거나 서로의 연주에 어울리는 화성과 리듬을 제시하는 식으로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 이러한 즉흥 연주의 과정에서 모든 연주자들이 동의하는 리듬적 흐름인 '스윙'이 형성된다. 연주자들이 표현하는 리듬의 상이함에서 촉발되는 긴장과 서로의 리듬에 호응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완이 반복되고, 이 과정에서 스윙이 형성되는 것이다. 즉흥적인 소통의 산물인 스윙은 매 연주마다 새로운 흐름으로 형성된다.

결국 즉흥 연주는 미지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야말로 재즈의 본령이라 말할 수 있다. 곡을 시작할 때 연주된 헤드는 절대적 규범이 아니며 즉흥 연주에서 일어나는 위반과 재해석을 위한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말을 빌려 '재즈는 유목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 그런 점에서 설득력을 지닌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특정 학자들이 사용한 개념과 그들의 입장을, (나)는 재즈의 특정 요소와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② (가)는 특정 학자들의 이론에 담긴 사회적 함의를, (나)는 재즈의 특성을 규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③ (가)는 특정 학자들의 이론이, (나)는 재즈의 음악적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④ (가)는 특정 학자들의 입장을 다른 학자들의 입장과, (나)는 재즈의 형식을 다른 음악 장르의 형식과 비교하고 있다.
⑤ (가)는 특정 학자들의 논리가 지닌 허점을, (나)는 재즈의 음악적 의의를 부정하는 논리가 지닌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5. '생산적 무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식되지 않으면서 인간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② 인간이 세계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③ 어린 시절의 가족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인간이 생명 그 자체의 상태에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⑤ 인간의 행동에 의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신 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과 다르다.

6.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재즈의 즉흥 연주는 아프리카 음악의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다.
② 재즈에서 솔로를 뒷받침하는 연주자는 곡을 마칠 때까지 솔로를 연주할 수 없다.
③ 재즈의 즉흥 연주에는 연주자 간의 서로 다른 연주가 만들어 내는 긴장이 수반된다.
④ 재즈에서는 솔로가 진행될 때 솔로를 하고 있지 않은 연주자들도 즉흥 연주에 참여한다.
⑤ 재즈의 즉흥 연주에서 일어나는 연주자 간의 음악적 소통은 다른 연주자의 연주를 모방하는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7.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헤드는 전복되기 위한 대상이며, 즉흥 연주는 재즈를 헤드로 수렴하는 경로로서 기능한다는 점
② 재즈를 통해 음악적 유목이 완성되며, 즉흥 연주는 헤드를 성립시키는 준거로서 기능한다는 점
③ 즉흥 연주는 규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과정이며, 헤드에 대한 위반은 그 과정을 이루는 요소로서 기능한다는 점
④ 즉흥 연주는 재즈의 음악적 요소를 비트는 수단이며, 동시에 헤드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
⑤ 즉흥 연주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재즈의 본질이며, 안정성이 확보된 헤드는 그 거점으로서 기능한다는 점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1930년대 미국에서는 '스윙 재즈'가 큰 인기를 누렸다. 이 때의 스윙은 연주 스타일의 하나로, 동일한 길이의 두 음표 중 앞의 음표를 보다 길게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의 스윙 재즈에서는 라디오 방송에 적합하도록, 한 곡의 대부분이 악보에 맞게 연주하는 데에 할애되었고 즉흥 연주는 짧게만 허용되었다. 이에 연주자들은 무리를 이루어 악보의 제약에서 벗어난 즉흥 연주 경연을 벌임으로써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1940년대에 등장한 '비밥'은 솔로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는 이후 재즈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즉흥성을 강조한 비밥은 그것을 감상한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① 스윙 재즈라는 명칭에서의 '스윙'은 규정된 하나의 연주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나)에서 언급된 즉흥 연주 과정에서 형성되는 리듬적 흐름으로서의 스윙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겠군.
② 스윙 재즈에서의 악보는 연주자들에게 제약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가)에서 언급된 홈이 파인 공간에 대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③ 스윙 재즈에서 즉흥 연주에 할애되는 시간이 제한된 것은 (나)에서 언급된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즉흥 연주의 기능이 위축된 결과로 보아야겠군.
④ 스윙 재즈 연주자들이 경연에서 벌인 즉흥 연주는 스윙 재즈의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가)에서 언급된 탈영토화가 집단의 영향 속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⑤ 비밥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경향을 보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가)에서 언급된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 수용자의 무의식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군.

9.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그 책은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에는 너무 <u>어렵다</u>.
② 그녀가 1차 시험에서 합격하기는 <u>어려울</u> 것 같다.
③ 그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지난해를 <u>어렵게</u> 보냈다.
④ 혼자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u>어려운</u> 일이다.
⑤ 손님이 계신 곳에서 편히 행동하기 <u>어려운</u> 것은 당연하다.

[10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드론이 수평 자세를 유지하며 공중의 한 지점에 떠 있는 것을 정지 비행이라 한다. 수평 자세를 유지하려면 드론이 바람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평면에 대해 기울어질 때 그 각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자세를 보정하는 자세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세 제어 시스템은 센서로부터 얻은 측정값을 바탕으로 현재 드론이 기울어진 각도를 추정한 값을 산출한 후 이 추정값과 목표 각도를 비교하여 편차를 구한다.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모터의 회전 속도에 맞게 출력값을 산출함으로써 드론이 수평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자세 제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활용된다. 먼저 자이로 센서는 드론이 앞뒤나 좌우로 기울어질 때 단위 시간당 회전 각도의 변화량인 각속도를 1초 단위로 측정하여 드론의 순간적이고 급격한 자세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한다. 그러나 드론이 기울어진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만으로는 기울어진 각도를 추정할 수 없다. 한편 가속도 센서는 드론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측정한다. 드론이 기울어진 각도에 변화가 없거나 천천히 기울어질 때는 센서의 측정값에 중력 가속도가 주로 반영된다. 드론이 기울어지면 드론을 기준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이 0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을 바탕으로 드론이 기울어진 각도를 추정할 수 있다.

두 센서의 측정값은 서로 다른 양상의 오차를 유발하여 각도의 추정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으로 드론이 기울어진 각도를 추정하려면 측정값을 시간에 따라 누적해야 한다. 이때 실제 각속도와 측정값 사이에 생긴 미세한 오차도 함께 누적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각도 추정값의 오차가 커질 수 있다. 반면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에는 모터 회전에 따른 진동이나 돌풍이 만든 불규칙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와 함께 반영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을 바탕으로 산출한 각도 추정값에 순간적인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상보 필터는 서로 다른 양상의 오차를 유발하는 두 센서의 측정값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오차를 보정하고 신뢰도 높은 추정값을 산출한다. 드론이 기울어진 각도가 오랜 시간 유지될 때에는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을, ㉠그 각도가 짧은 시간 안에 변할 때에는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영하는 것이다.

자세 제어 시스템은 산출한 각도 추정값을 바탕으로 P 제어와 I 제어를 통해 목표 각도와의 편차를 줄인다. P 제어는 현재 편차의 크기에 비례하여 출력값을 조절한다. 이때 출력값이 크면 편차를 없애는 데 필요한 정도보다 드론이 더 많이 회전하는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다. 오버슈트가 반복되면 드론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반복해서 흔들리게 된다. 반대로 출력값이 작으면 바람과 같은 외부 요인을 상쇄하지 못해서 일정한 편차가 지속될 수 있다. 이처럼 목표 각도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채 남게 되는 일정한 편차를 [정상 상태 오차]라고 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I 제어는 편차를 시간에 따라 누적하고 이에 비례해 출력값을 키움으로써 드론이 수평 자세로 돌아가게 한다. 다만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을 누적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차가 상보 필터에 의해 보정되지 않으면 I 제어는 이 오차로 인해 생긴 편차를 계속 누적하게 된다. 그 결과 출력값을 필요 이상으로 키우게 되어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각도 추정값은 센서로부터 얻은 측정값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② 편차를 줄이기 위한 출력값은 모터의 회전 속도 조절에 이용된다.
③ 목표 각도의 비교 대상은 각도 추정값이 아니라 센서의 측정값이다.
④ 단위 시간 동안 회전 각도의 변화량이 커질수록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도 커진다.
⑤ 드론이 정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평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자세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1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② 자세가 급변할 때 생기는 순간적인 오차를 중력 가속도의 방향을 이용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을 시간에 따라 누적해야 드론이 기울어진 각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짧은 시간 동안에는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을 누적해도 각도 추정값에 오차가 누적되지 않기 때문이다.
⑤ 급격한 자세 변화를 각도 추정값에 반영하고 불규칙한 가속도로 인한 오차의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드론이 수평 자세를 유지하며 정지 비행을 하던 중 상보 필터에 오류가 발생하여 특정 센서의 측정값이 지나치게 크게 반영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도 추정값과 목표 각도 간의 미세한 편차가 발생하였다. 이 편차가 누적됨에 따라 드론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반복해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① 각도 추정값과 목표 각도 간의 편차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P 제어가 누적된 편차에 비례하여 출력값을 계속 키워 발생한 현상이겠군.
②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을 누적하면서 생긴 오차가 상보 필터에 의해 보정되지 않아, I 제어가 이로 인한 편차를 누적하여 발생한 현상이겠군.
③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이 크게 반영됨에 따라, 불규칙한 가속도로 인해 생긴 순간적인 오차가 누적되어 출력값이 점차 커진 결과 발생한 현상이겠군.
④ 드론의 각속도가 0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이 크게 반영됨에 따라, 목표 각도와 각도 추정값의 편차가 없다고 판단하여 발생한 현상이겠군.
⑤ 가속도 센서에서 발생한 순간적인 오차가 상보 필터에 의해 보정되지 않아,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을 더 크게 반영하여 각도 추정값의 오차가 점차 커진 결과 발생한 현상이겠군.

13. 정상 상태 오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 요인의 영향이 커질수록 P 제어의 출력값이 작아져서 나타난다.
② P 제어가 현재 편차의 크기에 비례해서만 출력값을 조절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③ 목표 각도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채 일정하게 남아 있는 편차를 의미한다.
④ 목표 각도와의 편차가 작아지면서 P 제어의 출력값도 작아지는 데에서 기인한다.
⑤ I 제어가 남아 있는 편차를 시간에 따라 누적해 출력값을 키우면 줄어들 수 있다.

[14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금은 공공사업이나 자선 사업 등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어 장기간 운용되는 재원이다. 기금의 운용 기관은 정해진 시점에 목적에 맞게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물가 상승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재원의 실질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 기관은 지급 의무의 이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원의 안정성뿐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고려한다. 현금은 가치 변동의 폭이 비교적 작아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을 추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 기관은 재원을 현금으로만 보유하지 않고 주식, 채권 등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금융 자산에 ⓐ분산하여 운용한다. 이때 가까운 시점에 이행해야 할 지급 의무의 비중이 큰 기금은 수익성보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기금은 금융 자산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감수하고 보다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할 여지가 커진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 기관은 각 금융 자산의 특성과 지급 의무의 이행 시점을 함께 고려하여 자산별 목표 비중을 정해서 자산을 구성한다.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은 기금 전체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기대 수익이 높지만 가격 변동의 폭이 크고 채권은 기대 수익이 낮지만 가격 변동의 폭도 작다. 따라서 가격 변동의 폭이 큰 금융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그 금융 자산의 가격 변화가 전체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30%인 기금에서 주가가 10% 하락하면 전체 자산 가치는 3% 감소하지만, 주식 비중이 50%라면 5% 감소한다. 이처럼 금융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금 전체 자산 가치의 변동 폭은 달라진다.

기금의 운용 기관은 자산별 가격 변동이 전체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급 의무의 이행을 어렵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표 비중을 정한다. 하지만 기금에 포함된 각 금융 자산의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 전체 자산에서 각 금융 자산이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 비중에서 ⓒ이탈할 수 있다. 가령 주식과 채권으로만 구성된 기금에서 채권 가격은 그대로인데 주식 가격이 오르면 기금에 포함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므로 전체 자산 중 주식이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전체 자산의 가치도 증가한다. 전체 자산 가치가 증가한 만큼 지급 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자산 가치의 증가가 재원의 안정성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금의 운용 기관은 각 자산의 목표 비중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실제 비중이 이를 벗어난 경우에만 자산 구성을 조정한다. 실제 비중이 허용 범위의 상한을 넘어선 금융 자산은 일부 매도하고 허용 범위의 하한에 미달한 금융 자산은 추가로 매수하여 실제 비중을 목표 비중에 가깝게 조정한다. 허용 범위는 기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까운 시점에 이행해야 할 지급 의무의 비중이 큰 기금은 금융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없다. 따라서 지급 의무의 이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운용 규모가 큰 기금의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것은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실제 비중이 허용 범위의 상한을 넘는 상황에서 운용 기관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면 시장에 공급되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 주가 상승세가 ⓔ완화될 수 있다. 반대의 상황에서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하면 주가 하락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

14.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이 보유한 금융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금의 지급 의무 이행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 기관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금을 구성하는 각 금융 자산의 실제 비중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③ 기금을 구성하는 금융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가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허용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전체 지급 의무 가운데 가까운 시점에 이행해야 할 지급 의무의 비중이 큰 기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체 자산을 구성해야 한다.
⑤ 운용 규모가 큰 기금에 포함된 주식의 실제 비중이 허용 범위의 하한보다 낮아져서 운용 기관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주가 하락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

15.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금융 자산의 실제 비중이 높아지면 그 자산의 가격 변동이 전체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② 금융 자산별 목표 비중이 정해지면 자산 가치가 변하더라도 기금의 지급 능력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③ 기금 전체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④ 각 금융 자산의 실제 비중이 목표 비중과 달라지면 전체 자산 가치는 감소하기 때문에
⑤ 각 금융 자산의 가격이 변하면 곧바로 전체 자산의 구성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A 장학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위한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기금을 구성하는 각 자산의 목표 비중을 현금 30%, 국내 주식 40%, 해외 주식 30%로 정하고, 각 자산의 허용 범위를 목표 비중의 ±3%p로 설정하였다. A 장학 재단의 기금을 구성하는 자산들의 실제 비중은 목표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A 장학 재단 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이 28%가 되었다. A 장학 재단이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 해외 주식 가격은 더 하락하여 해외 주식의 비중이 25%가 되었다. 이에 A 장학 재단은 해외 주식의 실제 비중이 허용 범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보유한 현금을 활용하여 해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단, 해외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① A 장학 재단이 해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현금의 실제 비중도 목표 비중에 가까워지겠군.
② A 장학 재단이 해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해외 주식의 실제 비중이 27%가 되면 매수를 중단할 수 있겠군.
③ A 장학 재단이 해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A 장학 재단의 기금에서 가격 변동의 폭이 큰 자산의 비중이 커지겠군.
④ A 장학 재단이 해외 주식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해외 주식의 실제 비중이 허용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이겠군.
⑤ A 장학 재단이 해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결정한 목적은 해외 주식의 목표 비중을 조정하여 기금 전체의 자산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겠군.

17. 문맥상 ⓐ ~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나누어
② ⓑ : 알아차리고
③ ⓒ : 벗어날
④ ⓓ : 막기
⑤ ⓔ : 누그러질

[18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 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 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 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꺼내 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 송수권, 「등꽃 아래서」 –

(나)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 자취방.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아침에 퇴근하여 ㉠ <u>햇빛</u>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꺾이어 흩어지던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잔광도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던 방.
퀴퀴하고 걸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 있던 방.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던 방.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방 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 주던 방.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춰 주고 되비춰 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

(다)

"자네는 물건 찾는 사람을 보지 못했나? 앞을 보면 뒤를 못 보고, 왼쪽을 돌아보면 오른쪽을 보지 못한다네. 왜 그럴까? 방 가운데 앉아 있으면 몸과 물건이 서로 가리게 되고 눈과 공간이 너무 가깝게 된다네. 차라리 방 바깥으로 나가 **문에 구멍을 뚫고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네. 한쪽 눈만을 집중하더라도 방 안의 물건을 죄다 볼 수 있지."
낙서가 감사하며 말했다.
"이는 선생님께서 저를 약(約), 즉 일정한 거리를 두고 눈으로 집약해서 보는 것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거군요."
나는 계속 말했다.
"자네가 이미 '약'의 이치를 알았으니 또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비춰 봐야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어도 되겠군. 모름지기 해는 매우 활발한 양의 기운이라네. 온 세계를 감싸 주고 만물을 길러 주지. 젖은 곳을 비추면 마르게 되고 어두운 곳이 ㉡ <u>햇빛</u>을 받으면 밝아지네. 그렇긴 하나 나무를 태우거나 쇠를 녹이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일까? **빛이 널리 퍼져 정기가 흩어지**기 때문이라네. 만약 만 리에 퍼진 햇

빛을 거두어 좁은 틈으로 빛을 모아 둥근 유리알로 통과시켜 그 정기를 콩알만 한 크기로 만들면 처음에는 연기가 나며 반짝반짝 빛나다가 갑자기 불꽃이 일며 활활 타오른다네. 왜 그럴까? 빛이 한곳에 집중되어 흩어지지 않고 정기가 모여 하나로 되었기 때문이라네."

낙서가 감사하며 말했다.

"이는 선생님께서 저를 오(悟), 즉 깨달음을 가지고 타일러 주신 거군요."

나는 또 말했다.

"(중략) 지금 자네가 창문에 구멍을 뚫어 오로지 한쪽 눈에 집중하고, 둥근 유리알로 빛을 받아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치세. 그러나 창문이 투명하지 않으면 밝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유리알이 투명하지 않으면 정기를 모을 수 없다네. 무릇 뜻을 밝히는 이치는 본디 마음을 비워 외물을 받아들이며, 담박하게 해 사심이 없는 데 있다네. 이것이 [소완(素玩)], 즉 마음을 비워 완상하는 것 아니겠나?"

– 박지원, 「소완정기」 –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중심 제재의 역동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② (나)는 (다)와 달리 어조의 변화를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 (다)는 (나)와 달리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 (다)는 (가)와 달리 공간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대상이 환기하는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⑤ (가)~(다)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19.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1연에서 '이제'는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로 표현된 감정이 '잘게 부서져서' 해소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시점이다.
② 1연에서 '기쁨'과 '슬픔'은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어우러지고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감정의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③ 1연에서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2연에서 '밑뿌리'의 외양을 '절제 없'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는 근거이다.
④ 3연의 '또'는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와 같은 추측이 1연에서 제시된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과의 유사성에 기반한 것임을 드러낸다.
⑤ 1연의 '구슬 같은 소리'는 3연에서 '파란 옥빛 구슬 /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로 구체화되면서 감정의 '물결'이 가라앉고 평온해진 내면의 상태를 드러낸다.

2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전형적이지 않음을 부각하는 반면 ㉡은 글쓴이가 제시한 상황의 보편성과 결부된다.
② ㉠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강화하는 반면 ㉡은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③ ㉠은 화자가 행동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에, ㉡은 글쓴이가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④ ㉠과 ㉡은 모두 행동 변화의 동기를 자극하는 매개체이다.
⑤ ㉠과 ㉡은 모두 정서에 조응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응시는 '보다'라는 행동에 기반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다층적인 행위로, 물리적 시각의 차원을 넘어 정신적 차원을 포괄한다. (가)~(다)에서는 응시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포착하거나 대상과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내면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① (가)의 화자가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본 후 내면의 변화를 의식하고 (나)의 화자가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물리적 시각의 차원과 정신적 차원을 포괄하는 응시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② (다)의 글쓴이가 '문에 구멍을 뚫고 살펴보는 것'에 이어 '마음으로 비춰 봐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응시가 다층적인 행위임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③ (나)의 화자가 '오래오래' 들여다봄으로써 '어둠 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 내 눈을 발견'한다고 한 것은 응시의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④ (가)의 화자가 자신의 내면과 '지등의 불빛' 간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다)의 글쓴이가 '빛이 널리 퍼져 정기가 흩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응시를 통해 포착한 대상의 속성에 비추어 내면을 성찰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⑤ (가)의 화자가 '큰 둥치를 이루는 것'에서 인간의 삶을 떠올리고 (나)의 화자가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낮은 빛을 /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응시를 통해 얻은 깨달음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22. 소완(素玩)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대상의 외형적 특징을 탐구하는 것이다.
②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상의 전모를 집약함으로써 핵심을 이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③ 정돈된 마음으로 집중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진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④ 대상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내면을 비워 선입견을 배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⑤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본질을 파악하는 경지이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바람 잠깐 자고 뜰 안이 고요커늘
창문을 활짝 열고 병든 얼굴 높이 드니
㉠ 만 리 하늘땅의 가없는 청산이
엊그제 소년으로 백발이 되었어라.
남산의 맑은 기운 쓸린 듯하였으니
삼각산 푸른빛은 뉘라서 감춘단 말고.
아미산 검각의 파촉이 어드메오.
눈산 진면모를 여기 와 다 보노라.
㉡ 어와 조물주의 변화도 그지없다.
억만 백성들을 사치하게 하단 말가.
집마다 옥실이요 뜨락마다 옥섬돌일세.
내 집도 찬란하니 거처는 좋다마는
선비에게 과분하니 마음이 불안하다.
일만 집 거리에 흰 옥이 낭자하되
줍지 아니하니 풍속도 좋을시고.
눈 위에 수레바퀴 쌍으로 비껴 가고
말발굽 찍힌 자국 은잔같이 뚜렷하니
은장방의 솜씨가 천하의 기재로세.
섬돌 위에 **새 발자국 글자**가 완연하다.
㉢ 석양 추운 날에 날아드는 저 까마귀
깨끗하고 희디흰 눈빛을 더럽힐라.
천지 만물 중에 네 홀로 유다르니
흰옷으로 바꿔 입어 소복을 하였으랴.
㉣ 마당가 바위는 흰 범이 꿇앉은 듯
장수가 보았더면 큰 활을 당겼을걸.
ⓐ 고목의 늙은 가지 하나하나 흰 용일세.
비구름을 언제 얻어 벽공에 오르려나.
네 등을 잠깐 빌어 월계수를 꺾으려나.
그윽한 흥 점점 깊어 질병을 다 잊겠다.
흰옷을 잠깐 입고 청려장을 높이 짚어
바닥 없는 신을 신고 눈 속을 배회하니
나도 아니 선경의 신선이라 할 것인고.
(중략)
우뚝이 옥난간에 이내 몸을 의지하니
떠도는 이 몸은 다만 칠 척뿐이로세.
옛 시를 읊조리며 옛사람 생각하니
외로운 배 달빛 실어 흥취를 다하거늘
돌아오는 그 기상이 만고에 기특하다.
긴 노래 높이 읊어 달더러 묻는 말이
천하의 한곳을 눈 아래 굽어보니
경치 좋은 누대의 물색이 어떠하뇨.
높고 낮은 다섯 산은 구슬봉 되어 있고
어렴풋한 세상은 어디에 숨었는고.
㉤ 오늘 밤 밝은 기운 나에게도 나눌쏘냐.
어이하면 옛 도사 불러내어 놀아 볼꼬.
ⓑ 은 다리 다시 놓고 하늘에 능히 올라
세상에서 못 본 세계 천상에서 바라보고
조화옹을 만나 보아 온갖 변화 물은 뒤에
신선 술잔 얻어 내어 **신선주**를 가득 붓고
선도를 안주 하여 **북두 신선** 권한 뒤에
나도 한 잔 부어 마셔 추위를 막자꾸나.

– 홍계영, 「희설」 –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선의 이동을 따라 특정 계절의 풍속을 묘사하고 있다.
②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특정 시간대를 드러내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④ 주변의 사물에 감정을 투영하여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하여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24.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청산'의 변화를 인간사에 대응하여 본연의 모습을 잃은 자연에 대한 한탄을 표출하고 있다.
② ㉡ : 눈 내린 풍경을 '조물주'가 빚어낸 결과로 인식하여 그 변화의 다채로움에 감탄하고 있다.
③ ㉢ : '까마귀'에 주목하여 눈앞의 정경이 지닌 조화로움이 유지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④ ㉣ : '바위'의 형상에서 비롯된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⑤ ㉤ : 의향을 묻는 말을 통해 '밝은 기운'을 누리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25.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는 모두 상상 세계에 도달하게 해 주는 매개체로 인식된다.
② ⓐ와 ⓑ는 모두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로 인식된다.
③ ⓐ는 ⓑ와 달리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여 세속과 단절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④ ⓑ는 ⓐ와 달리 기다리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는 표지로 인식된다.
⑤ ⓐ는 외부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처지를, ⓑ는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확인하게 하는 원인으로 인식된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희설」의 화자는 눈이 내린 정경을 바라보며 현실의 일상 공간에서 낯설고 비현실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익숙한 공간을 재인식한다. 설경이 주는 흥취로 인해 화자는 그것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을 거닐며 즐기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현실의 경관을 완상하며 촉발된 상상은 천상 세계로 확장되어 그곳의 존재들과 교유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① 눈 위의 '말발굽 찍힌 자국'과 '새 발자국'을 보며 '은잔'과 '글자'를 떠올리는 것은, 현실의 일상 공간에서 정경을 낯설게 하는 요소를 발견한 것이겠군.
② '집마다 옥실이요 뜨락마다 옥섬돌'이라고 한 것은, 익숙한 공간이 눈으로 덮인 모습을 옥으로 이루어진 비현실적인 정경으로 재인식한 것이겠군.
③ '그윽한 흥'이 깊어 '바닥 없는 신을 신고 눈 속을 배회하'는 것은, 설경을 바라보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속을 거닐며 흥취를 누리는 행위를 상상한 것이겠군.
④ '어렴풋한 세상은 어디에 숨었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상상한 천상 세계에 다다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겠군.
⑤ '북두 신선'에게 '신선주'를 권한 후 '나도 한 잔 부어 마'시겠다는 것은, 천상의 존재와 교유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한 것이겠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돼앴어, 돼앴구먼. 아, 이렇게 좋은 걸 원. 아, 환하고 좀 좋아요."
하고 싱글벙글하였다. 동네 사람들도 일제히 탄성을 지르고 좋아하였다.

강 씨는 이렇게 하여, **대번에 이웃 간에 유지로 올라**섰던 것이다. 그 뒤 일주일쯤은 제법 흐뭇하였다. 동네 어귀의 배추밭 머리가 늘 귀신 나올 듯이 을씨년스러웠는데, 외등 하나로 온 동네가 여간 안온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겨우 일주일인가 지나서, 외등은 도둑을 맞았다. 어떤 놈이 전봇대로 기어 올라가서 전등도 갓째로 떼어 가고, 스위치까지 몽땅 뜯어 갔던 것이다.

"허어, 이 동네 못 살 곳이구먼. ㉠<u>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u> 도둑질하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원."
하고 강 씨도 맥이 풀린 듯이 전봇대 위를 쳐다보더니, 이튿날 낮으로 다시 슬리퍼를 직직 끌며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또 백 원씩 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어쩐지 저러는 강 씨가 조금은 뻔뻔스러워 보였다. 혹시 저런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이 슬그머니 머리를 드는 것이었다.

비단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대개는 군말 없이 백 원씩을 또 냈지만, 내심으로 저항을 느꼈던지 한 집인가는 돈이 없다고 내지 않았고, 두어 집은 내긴 내도 노골적으로 안 좋은 낯색이었던 모양으로,

"이웃 간에, 없으면 할 수 없지요오. 누가 안 냈는지는 굳이 이 자리서 밝히지 않겠쉐다. 세상 사는 게, 피차에 그럴 것까지는 없는 거야요. 돈 없어 죄지, 그 밖에야……."
하고 꽤 그다운 여유를 보였다.

두 번째 공사 때는 동네 사람들도 처음보다는 반응이 시큰둥하였다. 으레 또 도둑맞을 텐데 하는 표정으로 모두 멀찌감치 물러서서 구경들을 하는 속에, 강 씨만이 그전처럼 전봇대 밑에 바싹 붙어 서서 떠벌리는 꼴이 약간 허황스럽게도 보였다.

"저 사람이 저러다가 끝이 안 좋지나 않을까."
하고 남의 일이지만 조금 걱정이 되던 것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달포쯤 갔을까. 어느 날 밤에 또 갓째로 감쪽같이 도둑을 맞았다.

강 씨도 두 번씩 당하자, 이 일로는 더 이상 엄두를 못 내었다.

"아무튼 이 동네 못 살 데구먼. 외등을 두 번씩이나 도둑질해 가는 동네면 하늘 아래 처음 있는 동네지, 이게 사람 사는 동네겠소."
하고 며칠을 혼자 꿍얼꿍얼거리었다.

그 뒤에는 강 씨는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발가벗고 뛰어들듯이 동네 일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장마가 지나고 언덕길이 파였대서 집집마다 2백 원씩 걷어 소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고, 하수도 물 잘 빠지게 한다고 집집마다 3백 원, 이런 식으로 건이 연달아 이어졌다.

그러자 스름스름 **뒷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그런 일로 강 씨가 재미를 본다는 것이다. 이웃 간의 이런 눈치는 당사자도 금방 알게 되는 법이다. 그렇게 그에게도 어느 구석인가 벌써 그런 분위기가 묻어지고 주눅이 들어 갔다. 여전히 제 생겨먹은 대로 활달하기는 하였지만, 어느 구석인가 들쫓기는 사람의 그 조바심, 그리고 그전에는 못 보던 애걸조, 애원조가 표정에 묻어 갔다.

그 뒤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 가고, 처음에는 혐의 정도로 쑤군쑤군거리더니 어느새 온 동네가 술렁거리고 야단이었다. **가나 오나 그 사람 욕**이었다. 온 동네가 게거품 뿜듯이 괴상해져 가고, 열에 뜬 듯이 부들부들 불안으로 떨었다. 차차 당사자도 당사자대로 사생결단이나 내듯이 더 **철면피해지고 악착스러워** 갔다. 그러지 않아도 흉흉해 가는 동네에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그어 대듯이 **수도 신청 용지**를 돌린다, 그 용짓값이다, 수수료다 하고 더욱 기를 내는 것이 끝까지 해볼 기세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강 씨는 동네에 수도를 끌어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수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주민들은 강 씨에 대한 반감으로 수도 신청을 포기하고 강 씨에게 분노한 주민들이 강 씨의 집으로 몰려간다.

드디어 일은 벌어지는 모양이었다. 나는 옷을 주워 입고 나가 보았다.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린 대여섯의 장정이 문 앞에 서 있고, 그 뒤로 서넛의 아낙네도 서 있었다. 모두 두 눈에 핏발이 서 있었다. 강 씨 집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할 뿐이었다. 빗장을 건 채 열지를 않았다.

드디어 장정 두엇이 문을 안으로 들이찼다. 엉성하게 생긴 문은 금방 가리개 넘어지듯 하였다.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강 씨는 늦조반을 먹다가 말고 파자마 바람으로 나왔다. 처음부터 질려 있는 낯색이었다. 처연한 눈길로 몰려든 사람들을 둘레둘레 둘러보더니 한숨을 한 번 쉬었다.

"대체 뭐 하는 짓들이오, 이게."
애원하듯이, 그러나 점잖게 한마디 하였다.
"야, 너 그걸 몰라서 묻니? 우리가 왜 이러는지 몰라? 요 능청."
"글쎄, 이러질 맙시다. 엄연히 법도 있는 것이고."
"뭐, 법? 온 동네가 너를 쫓아내기로 했다. ㉡ 이게 법이다! 응할 테냐 불응할 테냐, 한마디로 말해."
"불응한다면 어쩔 참이오?"
"온 동네가 들고일어나서 쳐 죽이지, 가만둘 성싶으냐."
강 씨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의 뒤로 쫓아 나온 그의 마누라는 마루 끝에 엎어지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은 집이 팔릴 때까지 보아준다는 기한부로, 피차에 양해가 되었다. 그렇게 강 씨는 **급하게 집을 내놓**았고, 집이 팔리기까지 며칠 동안 삐쩍 말라 갔다. 이 어간에 나는 본의 아니게 두어 번 그와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는 전혀 모르는 체하였다. 얼마 뒤, 그가 이 동네를 뜰 때는 여전히 그 삐딱하게 쓴 밀짚모자 차림이었다. 그날도 날씨는 아침부터 끄물거렸다. 강 씨는 짐차를 앞세우고 언덕길을 내려오더니, 전봇대 밑에 잠시 서서 멀거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 이호철, 「이단자 1」 –

2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②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대비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③ 추측이 담긴 진술을 통해 인물과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상징적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암시하고 있다.
⑤ 여러 인물의 내적 독백을 나열하여 인물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강 씨'는 동네 사람들 중 일부가 외등 설치 비용을 안 낸 이유를 밝히지 않겠다고 하였다.
② 동네 사람들은 두 번째 외등이 설치될 때 '강 씨'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③ 외등을 두 번이나 도둑맞은 후에도 '강 씨'는 동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걷었다.
④ '강 씨'의 집에 몰려간 동네 사람들은 '강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⑤ '강 씨'는 동네를 떠나기로 한 이후 길에서 만난 '나'를 모르는 척하였다.

2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대방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말이다.
② ㉠은 상식에 비추어 현재 일어난 일을 부당한 것으로, ㉡은 상대방의 말을 되받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는 말이다.
③ ㉠은 지금 벌어진 것과 유사한 일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임을, ㉡은 이미 정해진 결정에 따라 자신이 취할 행동을 예고하는 말이다.
④ ㉠은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일어난 일을 당연한 것으로, ㉡은 다수의 견해를 내세워 자신의 요구를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말이다.
⑤ ㉠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은 자신의 오해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말이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집단의 정서는 구성원의 상호 작용 하에 공유되는 감정 상태이다. 집단의 정서가 작동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그 방향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단자 1」은 집단이 새로운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을 받아들일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정서가 작동하는 양상을 잘 보여 준다.

① 강 씨가 '대번에 이웃 간에 유지로 올라'선 것은,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강 씨의 행위로 인해 집단의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었음을 보여 주는군.
② '뒷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가나 오나 그 사람 욕'을 하는 것은, 강 씨에 대한 집단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전환되어 굳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③ 강 씨가 점점 '철면피해지고 악착스러워'가는 것은, 집단의 정서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④ 강 씨가 '수도 신청 용지'를 돌리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그를 쫓아내려 한 것은, 집단의 정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군.
⑤ 강 씨의 아내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고 강 씨가 '급하게 집을 내놓'은 것은, 집단의 정서로 인해 개인이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던 어느 날, 낭자가 선군의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낭군과 저는 요지연에서 서로 희롱한 죄로 상제께서 인간 세상에 귀양을 보냈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연을 이루라 했나이다. 그런데 낭군께서는 어찌 이것을 모르시고 다른 가문에 구혼하려 하시나이까? 낭군은 저를 위해 삼 년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고 거듭 당부하더니 문득 간데없더라.

선군이 깨어나 보니 남가일몽이라. 그러나 꿈속에서 본 낭자의 얼굴은 하늘을 날던 기러기가 부끄러워 땅에 떨어질 만큼 아름다웠으며, 조각달을 수놓은 듯한 자태는 천상의 밝은 달이 구름 속에서 막 솟아나는 듯했다. 선군이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붉은 입술에 하얀 이를 살짝 드러내고 말하던 낭자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옥 같은 낭자의 얼굴이 눈에 삼삼했다.

선군이 꿈에 본 낭자를 잊지 못해 병드니, 부모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네 병세를 보니 아무래도 이상하도다. 무엇 때문인지 숨기지 말고, 네 속마음을 사실대로 말해 보거라."

"며칠 전 ㉠꿈에 옥 같은 낭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저는 월궁 선녀인데, 그대와 천생연분이 있나이다. 다른 곳에 구혼하지 말고 저를 삼 년만 기다려 주소서' 하고 갔나이다. 그 낭자를 생각하니, 하루가 삼 년처럼 느껴지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삼 년을 기다릴 수 있겠나이까? 이로 인해 저도 모르게 병이 골수까지 깊이 들었나이다."

"너를 낳을 때 **하늘**에서 **한 선녀**가 내려와 이러이러하더니, 그 낭자가 바로 숙영 낭자로다. 그러나 꿈은 모두 헛된 것이니, **그 낭자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잘 먹거라."

이에 선군이 대답하기를,

"아무리 꿈이 헛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약 또한 매우 중요하오며, 저는 지금 음식을 먹을 수도 먹을 생각도 없나이다."

하고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않더라.

부모가 이러한 선군을 안타깝고 민망하게 여겨 온갖 약을 구해 먹여 봤지만, 선군은 조금도 효험이 없이 병만 더욱 깊어 갔다.

이때 낭자는 **옥연동**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선군의 **병이 위중한 것**을 잘 알고 있는지라. 다시 선군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낭군께서는 어찌 저와 같은 아녀자 때문에 그토록 병이 심하게 들었나이까? 이 약을 써 보시옵소서."

그리고 옥병 세 개를 내놓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불로초이고, 저것은 불사초이며, 마지막 것은 만병초이오니, 이 **세 가지 약**을 드시고 부디 삼 년만 참으소서."

하고는 문득 사라졌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상사병을 앓던 선군은 삼 년 기약의 금기를 깨고 숙영을 찾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선군이 부친 백 상공의 명으로 과거를 보러 상경하였을 때, 백 상공으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은 숙영은 자결하게 된다. 한편 장원 급제한 선군은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귀향길에 오른다.

이에 상공이 기쁜 얼굴로 한림에게 이르기를,

[A] "너는 얼굴이 두목지처럼 우아하고 풍채도 뛰어난데, 이제 한림학사라는 벼슬까지 하게 되었도다. 너 같은 대장부가 어찌 한 부인만 둔 채 세월을 보낼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널리 어진 낭자를 구했는데, 이 고을 임 진사 댁 낭자가 천하의 미인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임 진사에게 청혼하여 임 소저를 네 배필로 삼고, 바로 오늘 혼례를 올리기로 정했노라. 네 뜻은 어떠하냐?"

하며 백방으로 선군을 달랬다. 그러나 선군이 대답하기를,

"내려오다가 ㉡꿈을 꾸었는데, 낭자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나타나 가슴을 만지면서 말도 제대로 못 하더이다. 아무래도 낭자에게 무슨 연고가 있는 듯한데, 무슨 일이 있었나이까? 또한 저는 **낭자와 맺은 언약**이 소중하오니, 이 문제는 집에 내려가 낭자의 말을 들은 후에 결정하겠나이다."

하고 길을 재촉하여 임 진사 댁 앞을 그냥 지나가려 하는지라. 상공이 한림을 붙들고 달래어 말했다.

"이것은 양반의 자식이 할 행실이 아니로다. 혼인은 인간의 대사라. **부모가 구혼**하고 육례를 갖추어 혼인하여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거늘, 너는 어찌 이토록 고집을 부리느냐? 또한 네가 이대로 가는 것은 임 소저의 평생 대사를 그르치는 것이니,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로다."

한림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재촉하니, 하인이 한림에게 여쭈었다.

[B] "대감님의 말씀도 말씀이려니와, 만약 한림께서 그냥 가시면 임 진사 댁의 낭패도 매우 심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한림께서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그러나 한림은 그 하인을 꾸짖어 물리치고 백마를 몰아 달려갔다. 상공이 어쩔 수 없이 말을 타고 뒤따라오더니, 집 앞에 이르러 선군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가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떠난 뒤에 낭자의 방에서 외간 남자의 소리가 나더구나.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낭자에게 물으니, 낭자가 네가 왔다는 말은 하지 않고 매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더라. 그러나 내가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는지라. 수상히 여겨 부모로서 약간 **경계하는 말**을 했더니, 낭자가 여차여차하여 죽었구나. 이런 **망극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선군이 대경실색하여 울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낭자가 죽었나이까? 어찌 아버님께서 제게 이러실 수 있나이까? 저를 속이고 임 소저에게 장가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으십니까?"

하며 미친 듯이 중문으로 달려들어 가니, 동별당에서 나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문밖까지 들렸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숙영은 선군에게 정해진 기한 동안 자신을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② 선군은 동별당에서 나는 울음소리에 크게 놀라 중문으로 달려갔다.
③ 선군은 상공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길을 재촉하여 임 진사 집을 그냥 지나쳤다.
④ 상공은 선군이 서울로 떠난 후에 숙영의 방에서 난 인기척을 듣고 의혹을 품었다.
⑤ 선군의 부모는 병든 선군을 위해 백방으로 약을 썼으나 그의 병세는 전혀 차도가 없었다.

3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꿈을 꾼 주체가 꿈속에 나타난 인물의 진의를 의심하는 계기가 된다.
② ㉠과 ㉡은 모두 꿈을 꾼 주체가 꿈속에 나타난 인물이 하는 말에 따르는 계기가 된다.
③ ㉠과 ㉡은 모두 꿈을 꾼 주체가 꿈속에 나타난 인물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계기가 된다.
④ ㉠은 꿈을 꾼 주체가 꿈속에 나타난 인물을 그리워하는, ㉡은 꿈을 꾼 주체가 꿈속에 나타난 인물의 안위를 걱정하는 원인이 된다.
⑤ ㉠은 꿈을 꾼 주체가 꿈속에 나타난 인물과의 만남을 유보하는, ㉡은 꿈을 꾼 주체가 꿈속에 나타난 인물이 겪게 될 위험을 예감하는 원인이 된다.

3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가 저지른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②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의 지위를 근거로 상대가 스스로의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유도하고 있다.
③ [A]에서는 상대의 의중을 가늠하고자 진실을 은폐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를 안심시키고자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
④ [A]에서는 상대로 인해 변화된 상황이 자신에게 미칠 이익을 숨기고 있고, [B]에서는 상대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⑤ [A]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언급하며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이 가정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숙영낭자전」의 백 상공은 유교적 가부장제에 입각한 세속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로 천상의 초월적 힘과 그에 의한 운명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백 상공의 이러한 가치관은 결국 천상의 존재인 숙영의 죽음을 야기함으로써 숙영과 선군의 사랑에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숙영의 죽음 이후에 백 상공이 선군을 위해 마련한 대안은 그가 지닌 세속적 가치관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① '옥연동'에서 '귀양살이'하는 숙영이 선군의 '병이 위중한 것'을 알고 '세 가지 약'을 건네준 것에서, 숙영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천상의 존재임을 알 수 있군.
② '하늘'에서 내려온 '한 선녀'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선군에게 '그 낭자는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에서, 백 상공이 하늘이 정한 운명을 인정하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군.
③ '낭자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도록 선군에게 종용한 것에서, 숙영의 장래를 염려한 백 상공이 세속적 가치관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④ '부모가 구혼'한 결혼을 통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여기는 것에서, 백 상공이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군.
⑤ '경계하는 말'이 '망극하고 답답한 일'을 초래한 것에서, 유교 윤리에 따라 가문의 명예를 우선시한 백 상공의 가치관이 숙영과 선군의 사랑에 장애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서는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에서 '자기'는 '민서'를 가리키는 재귀칭에 해당한다. 재귀칭이란 일반적으로 한 문장 안에서 앞에 언급된 대상을 도로 가리키는 언어 표현으로, 주로 주어로 나타나는 선행 체언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인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저'와 'ᄌᆞ갸', '자내' 등이 재귀칭으로 쓰였다. '저'와 'ᄌᆞ갸'는 문장에서 선행 체언이 지시하는 대상을 존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쓰였다. 지시 대상을 존대하지 않을 때는 예사말 '저'가 쓰였는데, '저'에 주격 조사 'ㅣ'나 관형격 조사 'ㅣ'가 결합하면 '제'로 나타났다. 반면 선행 체언이 지시하는 대상을 존대할 때는 높임말 'ᄌᆞ갸'가 쓰였다. 지시 대상을 존대하는 재귀칭이 주어로 쓰이면 그와 호응하는 서술어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샤-'가 결합하였고, 재귀칭이 관형어로 쓰이면 높임의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하였다. '자내'는 지시 대상을 존대할 때 쓰였지만, 지시 대상을 존대하지 않을 때 쓰인 사례도 확인된다. 16세기 말부터는 지시 대상을 존대하는 재귀칭 '당신'과 지시 대상을 존대하지 않는 재귀칭 'ᄌᆞ긔'가 쓰였다.

재귀칭 '저'는 현대 국어에서도 예사말로 쓰이고 재귀칭 '당신'은 현대 국어에서도 높임말로 쓰이는 반면, 다른 재귀칭에서는 변화가 나타났다. 재귀칭 'ᄌᆞ갸'는 17세기 문헌부터 출현 빈도가 줄어 현대 국어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재귀칭 '자내'는 16세기까지는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재귀칭 'ᄌᆞ긔'는 '자기'로 형태가 변화하여 현대 국어에서 예사말로 쓰인다.

한편 재귀칭으로 쓰이던 단어가 2인칭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그 예로 '자내'는 16세기 후반의 문헌에서, '당신'은 18세기 문헌에서 2인칭으로도 쓰인 사례가 확인된다. '자내'는 '자네'로 형태가 변화하여 현대 국어에서 친구나 아랫사람을 대우하는 2인칭으로만 쓰인다. 반면 '당신'은 현대 국어에서 아주높임의 등급을 지닌 재귀칭과 상대를 어느 정도 대우하는 2인칭으로 모두 쓰인다.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한 문장 안에서 재귀칭이 도로 가리키는 선행 체언은 주로 주어에 해당한다.
② '그럼 저는 먼저 출발할게요.'에서의 '저'는 앞에 언급된 대상을 도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재귀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16세기 말부터 쓰인 재귀칭 'ᄌᆞ긔'와 현대 국어의 재귀칭 '자기'는 모두 예사말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④ 16세기 후반의 문헌에서 '자내'는 현대 국어의 '자네'와 달리, 재귀칭과 2인칭으로 모두 쓰였다.
⑤ 2인칭으로 쓰이던 '당신'은 18세기 이후에 재귀칭으로도 쓰이기 시작하여 현대 국어에까지 이어졌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15세기 국어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淨飯王이 깃그샤 부텻 소ᄂᆞᆯ 손소 자ᄇᆞ샤 ㉠ <u>ᄌᆞ갯</u> 가ᄉᆞ매 다히시고
[정반왕이 기뻐하시어 부처님의 손을 손수 잡으시어 당신의 가슴에 대시고]
○ 舍利弗이 四衆의 疑心도 알며 ㉡ <u>자내</u>도 몰라 부텻긔 ᄉᆞᆯ보ᄃᆡ
[사리불이 사중의 의심도 알며 자기도 몰라 부처께 사뢰되]
○ 아비 ㉢ <u>제</u> 아ᄃᆞᄅᆡ ᄠᅳ디 사오납고 ㉣ <u>저ᄂᆞᆫ</u> 豪貴ᄒᆞ야 아ᄃᆞ리 어려ᄇᆡ 너기ᄂᆞᆫ ᄃᆞᆯ 아라
[아비가 제 아들의 뜻이 사납고 저는 호귀하여 아들이 어렵게 여기는 줄을 알아]

① ㉠에 쓰인 재귀칭이 가리키는 대상은 '부텨'이군.
② ㉡에 쓰인 재귀칭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서술어와 호응하여 쓰이는군.
③ ㉠과 ㉢은 모두 재귀칭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것이군.
④ ㉡에 쓰인 재귀칭과 달리, ㉣에 쓰인 재귀칭은 가리키는 대상을 존대하지 않는군.
⑤ ㉢과 ㉣에 쓰인 재귀칭이 가리키는 대상은 서로 다르군.

37.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조건]
○ 관형어가 두 개 쓰일 것.
○ 사동사를 통한 사동 표현이 나타날 것.
○ 부사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포함할 것.

① 언제나 가식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 우습다.
② 소비자의 반발로 판매 가격을 더 높이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③ 그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다.
④ 나는 성실한 그녀에게 주요 업무를 맡기기로 굳게 결심했다.
⑤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음에 나는 기뻤다.

38.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언중의 언어생활에서는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 사례에서 표준 발음과 비표준 발음 간 차이를 비교해 보자.

예	표준 발음	비표준 발음
㉠ 금요일	[그묘일]	[금뇨일]
㉡ 민낯을	[민나츨]	[민나슬]
㉢ 짧네요	[짤레요]	[짬네요]
㉣ 샅샅이	[삳싸치]	[삳싸시]
㉤ 부엌에	[부어케]	[부어게]

① ㉠의 표준 발음과 비표준 발음 간 차이는 ㄴ 첨가의 적용 여부에 기인한다.
② ㉡의 표준 발음과 비표준 발음 간 차이는 구개음화의 적용 여부에 기인한다.
③ ㉢의 표준 발음과 비표준 발음 간 차이는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 여부에 기인한다.
④ ㉣의 표준 발음과 비표준 발음 간 차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횟수에 기인한다.
⑤ ㉤의 표준 발음과 비표준 발음 간 차이는 서로 다른 두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에 기인한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암컷'과 '수컷', '선배'와 '후배'처럼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반의 관계라고 한다.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끼리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암컷과 수컷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암수'나, '선배와 후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 '선후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선후배'와 달리 '암수'는, ㉠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나누어 대립의 중간 지대를 상정할 수 없는 반의어끼리 결합한 단어이다. 다음 제시된 단어 ⓐ~ⓔ 중에서 ㉠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두 골라 보자.

단어	뜻풀이
ⓐ 생사	삶과 죽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실내외	실내와 실외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아래위	아래와 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유불리	유리와 불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아침저녁	아침과 저녁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0~43] 다음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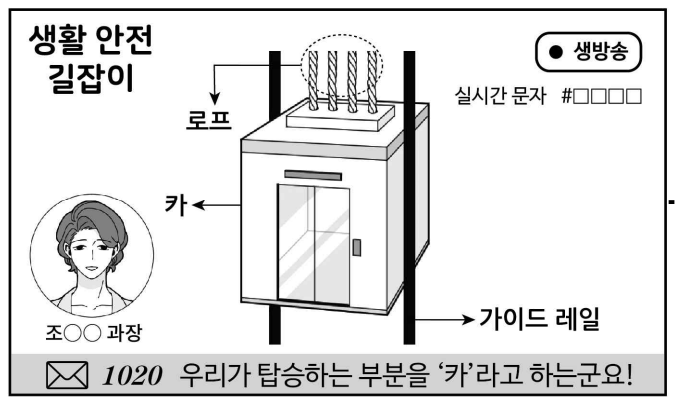
진행자 : ㉠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진행되는 생방송 '생활 안전 길잡이'입니다. 이달의 주제는 엘리베이터 안전입니다. 오늘 도움을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 안녕하세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안전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자 : ㉡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 주시는 문자는 화면 아래의 자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방송 전에 제작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 : 그런 분들도 있지요. 오늘 엘리베이터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 제 설명을 들으면 안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 : 제작진도 귀를 기울이고 있네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B]

전문가 :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실까요? 이것은 주요 부품을 중심으로 엘리베이터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로프'에 연결된 '카'가 '가이드 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시설입니다. ㉣ 카 한 대에는 로프가 세 개에서 열 개 정도 연결되어 있어 카 자체의 무게와 최대 탑승 인원의 무게를 합친 것의 열 배 이상을 버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로프에 문제가 생겨도 운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또 다른 부품도 있나요?

전문가 : 네. 과속 조절기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속도가 설정된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카를 강제로 정지시킵니다.

진행자 : 엘리베이터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 : 맞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점검해야 합니다.

진행자 : 엘리베이터의 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C]

전문가 :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엘리베이터의 식별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부착물을 확대한 것입니다.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은 부착물이 있습니다. ◇◇승강기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한 뒤 승강기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엘리베이터의 검사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착물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해당 엘리베이터의 승강기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검사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지금 고정 자막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누리집의 주소가 나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안전과 관련해 시청자분들께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전문가 :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문제가 생겨 이용자가 갇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용자가 무리하게 탈출하려고 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상벨을 눌러 구조를 요청한 뒤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진행자 :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안전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국 누리집의 다시 보기 게시판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댓글도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는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화면 우측에 제시하고 있다.
② [B]는 전문가의 모습을 작게 삽입해서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③ [B]는 방송 진행 중 시청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을 화면 하단에 제시하고 있다.
④ [C]는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는 부착물의 예시를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C]는 진행자의 마지막 말에 언급된 누리집 주소를 화면 하단에 고정해 제시하고 있다.

41. 위 방송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행자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을 언급하고 있다.
② 진행자는 방송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밝히며 지난 방송의 내용을 환기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제작진의 말을 인용해 방송의 주제로 엘리베이터 안전이 선정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④ 전문가는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하며 엘리베이터의 주요 부품과 구조적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⑤ 전문가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언급하며 엘리베이터 탑승 중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2. 다음은 위 방송의 다시 보기 영상에 달린 댓글이다.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시 보기 게시판

안전준수 : 방송에서 승강기와 엘리베이터라는 용어가 모두 나오던데,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인가요?

침착하게 : 엘리베이터의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했는데 방송에서 다루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 **원칙대로** : 저도요! 이번 기회에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꼭 알아보려 해요. 찾아서 댓글 남길게요.

위험비켜 : 근처 상가의 엘리베이터 검사 이력을 조회해 봤더니 '조건부 합격'이라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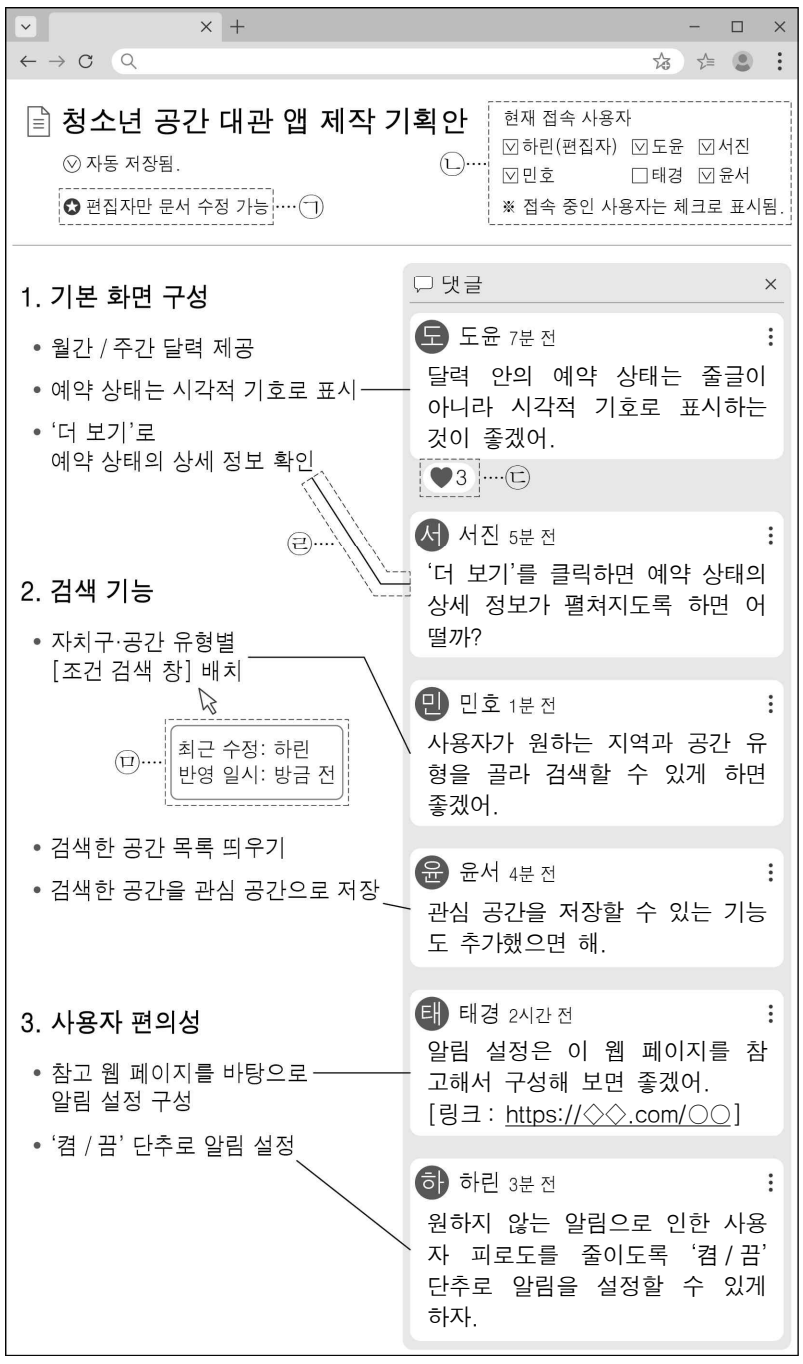
↳ **든든해요** : 승강기 회사 직원입니다. 운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적 사항이 있을 때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는데, 2개월 내로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① '안전준수'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방송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② '침착하게'는 방송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보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③ '원칙대로'는 '침착하게'의 의견에 공감하며 추가 정보를 탐색할 의향을 드러내고 있다.
④ '위험비켜'는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⑤ '든든해요'는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위험비켜'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하고 있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진행되다'를 사용하여 진행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진행의 대상인 방송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 : '-도록'을 사용하여 문자를 받는 목적이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 : '-ㄹ 수 있다'를 사용하여 전문가의 설명으로 인해 시청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④ ㉣ : '-어 있다'를 사용하여 카에 로프를 연결하는 과정이 진행됨을 표현하고 있다.
⑤ ㉤ : '또한'을 사용하여 엘리베이터의 검사 이력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4 ~ 45] 다음은 학생들이 '청소년 공간 대관 앱'을 제작하기 위해 작성 중인 온라인 공동 문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을 통해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을 통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접속 중인 다른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을 통해 댓글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을 통해 문서의 특정 항목에 사용자의 댓글이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을 통해 문서의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45. 위 문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기>의 앱을 제작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① 예약 상태의 제시 방식에 관한 도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예약 상태를 시각적 기호로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② 예약 상세 정보 확인에 관한 서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해당 정보의 화면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③ 검색 기능에 관한 민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공간을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④ 관심 공간 저장에 관한 윤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저장한 관심 공간의 목록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⑤ 알림 기능의 조절 방식에 관한 하린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실시간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